

이대호, 연봉조정 후폭풍



“이게 최선입니까?” 이대호의 연봉을 결정한 5인의 조정위원들. 나름의 소신을 갖고 최선의 결론을 얻으려 애썼던 선의와는 별개로 조정위원들의 선정 절차부터 공정성에서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왼쪽부터 김중 한양대 교수, 최원현 KBO 고문변호사, 대한야구협회 김소식 전 부회장, 야구해설가 박노준 씨, KBO 이상일 사무총장.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선수협 “불공정 계약관행 뿌리뽑겠다”

베이스볼 브레이크

20일 롯데 구단과 이대호의 연봉조정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사자가 한국프로야구의 상징 인물 이대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고, KBO는 이에 대해 반격했다.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불사 조정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선수협 한번에 너무 많은 요구” KBO, 여론의 집중질타에도 냉소

선수협 연봉조정자로 총실화 필요 위원장에 중립적 인사 숙제 남겨

●선수협 성명서 발표 KBO에 직격탄

선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결정이 결코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기에 수용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생구단의 창단을 반대하는 롯데를 달래기 위해 이대호 선수를 희생시킨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내렸다. 이어 “선수협은 선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약과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 및 규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선수협은 이날 이대호의 자료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이래도 우리 자료가 미흡했느냐”며 반박했다. 총 11페이지에 달하는 연봉조정신청 근거자료와 함께 언론보도 내용 200페이지 분량의 발도 파일을 조정위원회에 넘겼다는 것이다. 선수협의 강경 노선에 KBO는 “할 테면 해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다. KBO 이상일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최근 두 달 사이 두 차례 만났다”면서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를 얘기 해 12월에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 프리에이전트(FA) 규정도 선수협 안을 다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손질했다”면서 “점진적으로 선수협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한다면 부작용만 생길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에 주어진 과제

전날 조정위원으로 참석해 이대호를 지지한 A씨는 선수협이 근거자료를 공개하자 대뜸 “공개 잘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선수협의 자료에 왜 7억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했다면 이대호가 이기는 상황이었다”면서 “자료만 본다면 사실 길게 회의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 4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것은 이대호가 타격 7관왕을 차지한 상징적인 것을 어떻게 보상해줄지를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수협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정 이유’ 첫 머리를 ‘FA 프리미엄’이라고 설명해놓고 있다. 사실 이는 오히려 구단 측에서 ‘FA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연봉을 더 많이 올려주게 됐다’고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FA 프리미엄 자체는 구단이 보상금액을 높여 선수의 타구단 이적을 어렵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다. 선수가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선수협 사무국은 KBO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이번 이대호의 패배에 책임부러 통감해야한다. 에이전트 제도가 없는

현실상 이대호가 기필 수 있는 것은 선수협 사무국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제도는 언제 도입될지 기약이 없다. 선수협 사무국은 일단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 선수노조나 에이전트가 준비하는 연봉조정 자료를 입수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부터 알아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지난 일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대호도 패했는데 다른 선수가 연봉조정 신청을 한다면 이번 같은 자료로는 더 역부족이다.

●KBO가 짊어질 숙제

KBO 역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다. 5명의 조정위원은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적어도 조정위원장은 구단과 선수협이 모두 찬성하는 법조계 인물 등 중립적 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5-0이나, 4-1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시끄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호는 2-3으로 졌다. 이번에 중립적 조정위원장이 있었다면 KBO가 이렇게 비난받지 않았을지 모른다. KBO는 “KBO가 구단뿐만 아니라 지적인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기록권을 모두 움켜쥐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하소연도 힘을 잃는다. 과연 KBO를 비난하는 팬들이 그동안의 연봉조정 1승 19패 결과에만 흥분하는 것일까.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김현진 기자 puogala@donga.com

“난 패배자... 너무 화가 난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안할 것”

이대호, 연봉조정 결과 소회 “자료로 구단 이길 선수 있나? 더 열심히 뛰며 갈을 갈겠다”



“우리 현실에서 자료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선수가 구단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내비쳤다.

마음고생이 큰지,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게 있었다. 그러나 의지만은 확고했다. “난 패배자다. 하지만 일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이판에 도착해 첫날 훈련을 소화한 롯데 이대호(사진)는 21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루 전 연봉조정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계획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나 이번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 당초 강경 자세를 보였던 선수협도 이같은 이대호의 뜻에 따라 손해배상 등 이대호가 직접 연관된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호는 “주변에서 연봉조정위원회에 가면 선수가 절대 불리하다고 할 때도, 난 ‘한국야구가 많이 발전했으니 이번엔 다를 것이다. 믿어보자’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면서 “구단도, 조정위원회도 잘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가 구단안을 선택한 이유로 선수협이 제출한 ‘부실한 근거 자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는 선수협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 결정으로 선수협도 화가 날 것이고, 나도 화가 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내 야구 선배시다. 여기서 더 일이 커지면 야구계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일이 확대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번 결과로 연봉에 관한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은 더 이상 없다는 점에서 가슴 아프다. 동료 선배, 특히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며 하루 전 입장을 되풀이 한 그는 “팬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일이 더 커진다면 팬들께 또 한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난 패배자”라는 말을 반복한 그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엔 망스럽다”면서 “구단도, 조정위원회도 잘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가 구단안을 선택한 이유로 선수협이 제출한 ‘부실한 근거 자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김도현 기자 dahoney@donga.com

생명보험협회의 심의필 제2010-3281호(2010.12.16)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KDB생명 KDB생명

보험료는 낮추고, 해지환급금은 높이고!

이제 보험료도 다이어트하세요!

보험료지수 113.2 (표준형 남자)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는 낮고, 중도해지환급금은 높고!

업/계/최/저

보험료지수 113.2

상담전화 (24시간 접수) 1644-3866

좋은 중신보험 선택요령

- 정말 중신(보험)을 믿는지 확인 (65세형, 75세형)
- 보험료지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한다
- 회사원 지급(계약금), 재무안정 등도 함께 확인한다

EVENT

신규가입상담자 중 추첨을 통해 외식상품권 1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3년 연속업계 판매 1위

★2009 한국일보 히트상품선정★

★2010년 삼한기 아주경제 히트상품선정★

★지금 이 발톱, 발관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

당신의 발톱은 안녕하십니까?

토비의 행복 스토리

원스톱 발톱 패치

원스톱 발톱 패치 (발톱미용청결제)

프롤리스, 석션, 마지현, 비파, 목영, 유영, 장훈, 금은화

5일에 1번씩! 발톱에 붙여 주시면 고질적인 발톱이 예쁜 발톱으로 탄생 됩니다.

발톱이 부스러지나요? 누렇게 변색 되었나요? 도무지 두꺼워 자랄수가 없으시나요? 발톱변형, 변색, 부스러짐으로 먹고, 발라도 안되니 고민하는 분들께 건강하고 깨끗한 분홍빛 발톱으로 다시 자랄 수 있게 원스톱 발톱패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희한한 제품이라 많은 고객님의 뜨거운 찬사속에 원스톱 발톱패치가 새 발톱을 선물하는 행복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원스톱 발톱 패치는 특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건강하고, 깨끗한 새 발톱이 탄생되는 외용제입니다. 오래도록 고질적이었던 발톱이 예쁜 발톱으로 새로워 집니다.

★체험사례 후기모집 신세계 5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홈페이지 참조) www.uposemall.kr

당신의 발은?

원스톱

한방 발 미용청결제 (가려움, 수포(물집), 각질, 냄새)

★ 써보신분만 알지요?

가려움, 각질, 냄새, 물집(수포)로 인해 고통받는 발! 먹어도 발라도 안되니 지긋지긋 하시나요? 긁어도 긁어도 가려우시나요? 씻어도 씻어도 냄새가 나신가요? 물집(수포)으로 인해 각질이 많으시나요? 1번(1시간) 원스톱 사용으로 지긋지긋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각질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스톱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번(한시간)만 사용하세요!

사용해보지 않고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제품 원스톱! 씻어도 냄새나고 가려운 발을 깨끗하고 건강한 예쁜발로 바꾸어 드립니다. 냄새제거는 보너스! 가려움증, 수포(물집), 냄새, 각질로 힘드신가요? 원스톱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단 1회(1시간) 사용하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발속에 숨어있던 지긋지긋한 괴로움 활 날려 버리고 건강하고 촉촉한 윤기나는 발로 시원한 여름 되세요.

www.upose.kr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FDA등록 · 상표출원 · 현대대상 3억 생산물 책임 보험 가입